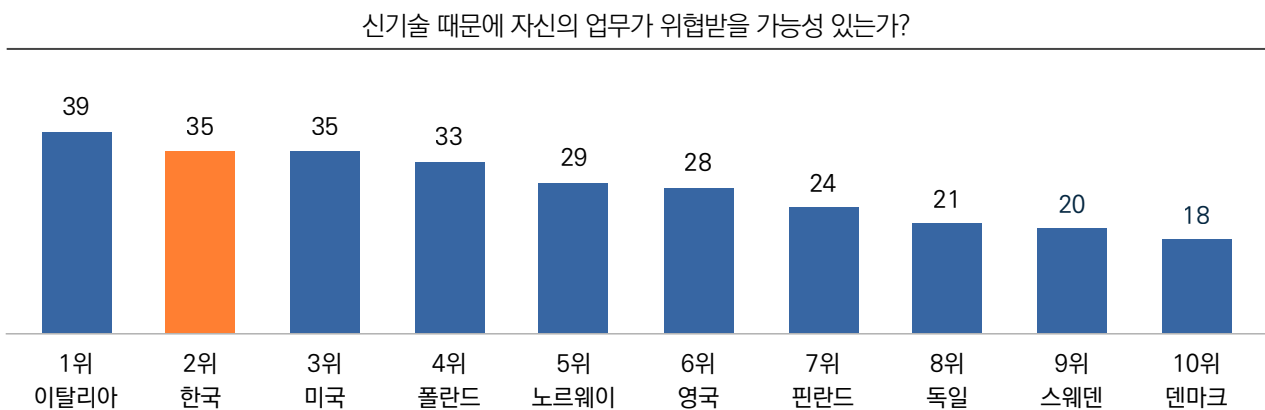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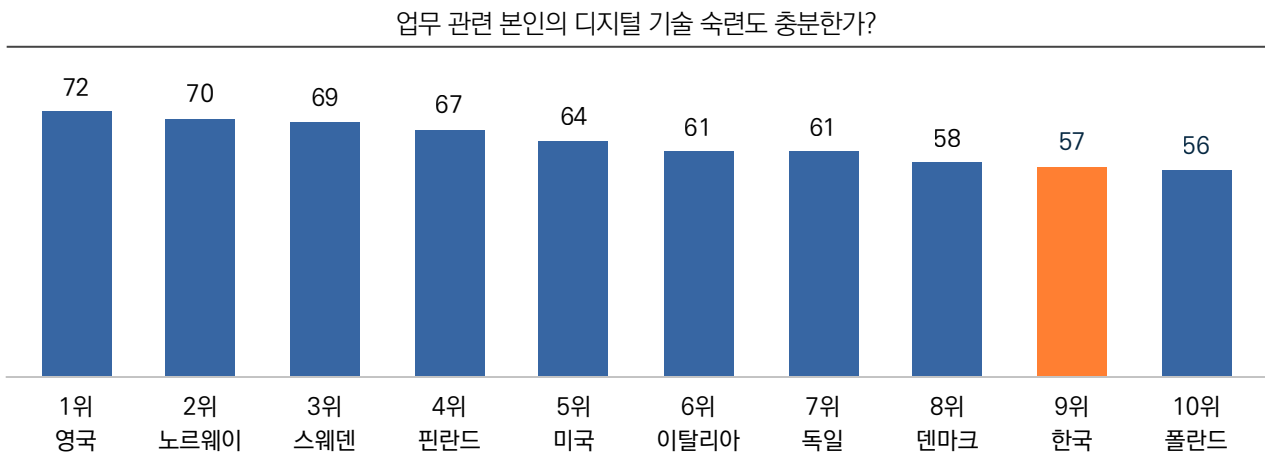




[디지털 기술(AI 등)에 관한 OECD 10개국 시민들의 인식] ‘AI 때문에 내 업무 위협받을 가능성’, OECD 10개국 중 한국 2위!

-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10개국 시민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(AI)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자료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.
- 먼저 본인의 업무 수행에서의 디지털 기술 숙련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, ‘영국’이 72%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, 한국은 57%로 폴란드(56%)에 이어 10개국 중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.
- 반면 ‘AI 등 신기술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위협받을 가능성’에 대해서는 한국(35%)이 이탈리아(39%)에 이어 2위였다. 한국인의 경우 자신의 AI 기술 숙련도는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한편 AI 기술이 자신의 업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주관적 숙련도 및 위협에 대한 인식 (OECD 10개국, ‘매우 동의+동의함’ 비율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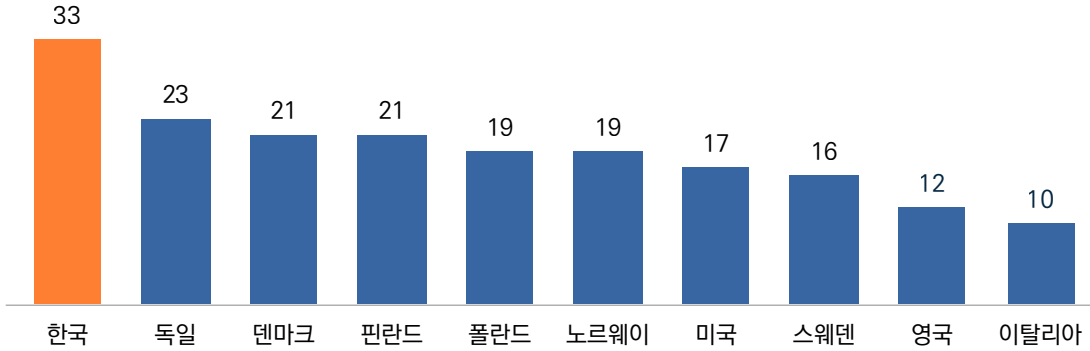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(AI)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, 2024.09.

*5점 척도(매우 비동의, 비동의, 비동의도 동의도 아님, 동의, 매우 동의)

그러나 AI 규제에 대해서 한국의 부정적 인식 가장 높아!

- 이번에는 AI 등 노동자를 대체하는 신기술이 기업의 수익을 높일 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. 그 결과, '무규제나 최소한의 규제'에 대한 동의율, 즉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은 한국이 10개국 중 1위(33%)였고, 이어 독일(23%), 덴마크(21%)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AI 등 신기술이 기업 수익 높일 경우 '무규제나 최소한의 규제'에 대한 동의율* (OECD 10개국, %)


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(AI)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, 2024.09.

*5점 척도(매우 강력한 규제, 강력한 규제, 중간정도의 규제, 최소한의 규제, 전혀 규제하지 않음)